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준비

선재하신 예수님	1장	
물로 포도주 만드심	2장	❶ 표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메시지/사역

사역 준비	3장	
신하의 아들 고치심	4장	❷ 표적
베데스다 병자 치유	5장	❸ 표적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① 나는-이다
오병이어/물위를 걸으심 (35, 48, 51) 생명의 떡	6장	❹❺ 표적
	7장	② 나는-이다
(12/9:5) 세상의 빛	8장	③ 나는-이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치유	9장	❻ 표적
양의 문문	10장	④ 나는-이다
(11, 14) 선한목자		⑤ 나는-이다
나사로를 살리심	11장	❼ 표적
부활, 생명		⑥ 나는-이다
예루살렘으로	12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부활

수난예고, 발을 씻기심	13장	
길, 진리, 생명	14장	❼ 나는-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15장	❸ 나는-이다
성령의 일	16장	
대제사장적 기도	17장	
잡히심, 심문 '내가 그니라/왕이나라'	18장	⑨ 나는-이다
십자가, 죽음, 장사	19장	
가장 위대한 표적 부활	20장	❸ 표적
내 양을 먹이라	21장	

요한
복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2020 사순절 드라마바이블 0327 5번째 I
요한복음 14-17장

- * 요 14:6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율법은 본래 토라(Torah), 즉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어 토라를 그리스어 노모스(nomos)로 번역했고,

이를 우리말로 율법,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단어를 들을 때 법, 규정, 계명을 연상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전 5세기 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토라'를 기본 강령으로 삼으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정'처럼 인식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본래 법 개념보다 이야기나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율법은 때로 오경을 넘어 구약에서 하신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살아야 할 방식을 일깨우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권위 있는 지침, 길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3-105). "

우리가 율법하면 떠올리는 '규범적 요소'는 '할라카'라고 불렀습니다.

할라카는 할라크, '걷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즉 규범적 요소인 할라카 역시 강제적인 요소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며,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걷길 원하셨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창조의 순리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11:45).”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시 19:8).”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탐욕과 죄로 율법에 갇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율법을 왜곡하여 하나님 노릇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3:16, 11:42).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1:14).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이며 율법이며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마5:17).

나라마다 법이 있듯,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한국 영토 내에서도 각 대사관은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공간이 아니라 법이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법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12:44-46).

그러므로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통치가 효력을 발휘합니다(3:16, 5:24, 10:10, 10:28, 11:25).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밝은 눈으로 세상과 삶과 죽음을 보게 됩니다(9:7).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에 거합니다(8:12).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됩니다(8:51).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과 복에서 벗어나 어둠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3:17).

율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14:6).”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후

죽음과 부활 가운데 높이 올림을 받으며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13:3).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습니다(14:1).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파라클레이토스)’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인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16:7).”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 되십니다(마10:20, 행6:10, 요15:26).

성령님은 우리의 중재자, 중보자, 대변인 되십니다(요일2:1, 15:26-27).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16:6-7).

성령님은 우리의 권고자 되시며 격려자 되십니다(살전3:2, 롬12:8, 히13:22, 행13:15).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생령이 되게 하셨듯이(창2:7)

성령님은 우리 삶에 생명을 불어 넣으실 것입니다(7:39).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14:26), 진리의 길을 따라 인도하시고(16:23),

예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16:14).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16:17-18).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화목합니다(14:23).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닮은 삶을 살게 됩니다(**경건의 삶 Godly**).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11:45).”

성령을 통해 하나님 닮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을 뜻하는 영어 holy는 whole과 health로부터 기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인적인 건강, 즉 영혼몸이 모두 온전한 상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느 하나만 건강하여 뭔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 이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참 평안, **shalom(Shalom)**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14:27)”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16:33)”